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전 재 강*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을 논의했다. 정철은 일반 유자들이 가지는 현실지향의 근본적 성격을 바탕으로 가지면서도 근기 지역의 기호 사림의 일원으로서 주기적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더 현실지향성을 가졌고 유년에 행복한 궁중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현실 지향은 구체적으로는 궁중 지향으로 나타났다. 시조에서 군주와 단절된 상황일 때에 절대적 지향성을 가지고 단절을 극복하지 위한 갖가지 노력을 했고 자아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군주를 향한 절대적 지향의 당위성을 드러냈다. 군주와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자는 궁중에서의 관직 생활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였고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현직에 복무하면서도 군주가 있는 궁중 지향을 그치지 않았다.

현실 지향성과 관련하여 자연과 음주는 정철에게 있어 풍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정철이 군주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유희와 호방함의 정서를 드러냈고 군주와 부정적 관계 속에 처했을 때에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 물러나 자연과 친화하며 심성을 연마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일반 유자들과는 달랐다. 음주에 있어서 정철은 군주와의 우호적 관계에서는 술을 통하여 여유와 유희를 주된 내용으로 표현했고 군주와 단절된 상황에서는 고뇌와 근심을 씻기 위하여 통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감성적 행동을 시조에 표현했다. 술을 통하여 고뇌를 이기려는 성향은 그의 스승 김인후 한시나 그의 후배인 신희의 시조에서도 확인되어 음주 풍류의 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다.

핵심어 : 기호사림, 현실지향, 궁중지향, 자연풍류, 음주풍류

* 동양대학교

1. 서론

국문문학에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정철 문학은 국문학 연구가 시작되던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사 문학에 대한 연구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조, 한문학의 순서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¹⁾ 그가 남긴 시조는 조선 중기 주자학에 매몰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정철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시조는 자연을 노래하거나 성리학적 이념을 형상화하며 충군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철의 시조는 소재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작품 성격에 있어서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그가 남긴 80여 수의 시조 작품에 나타난 현실 지향²⁾의 성격, 풍류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교적 세계관을 신봉했던 유자들은 근본적으로 현실 지향적이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유자들은 현실 지향만을 일삼지 않고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를 기르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같은

-
- 1) 송강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의 생애나 문학을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살피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송강의 가사, 시조, 한시 등 갈래별, 혹은 갈래간의 비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강 시조 역시 송강 시가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의 일부분으로 연구되거나 아니면 송강 시조 전체를 묶어서 연구하는, 예를 들면 송강 시조의 전체적 성격, 풍격이나 미의식을 연구하는 업적들이 많았다. 그러나 연구를 심화하고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송강 문학 전체에 대한 안목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특정 장르 안에서의 하위 유형별, 또는 문제 중심별로 연구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는 특히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철 문학의 갈래별, 갈래 안에서의 하위 유형별, 갈래들 간, 나아가 총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2) 여기서 현실이라고 하면 정치 현실을 말하며, 지향은 바로 그런 정치현실을 추구하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풍류를 즐기기도 하며, 자연을 완상하거나 자연 속에서 심성을 연마하고 전아한 음악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관직의 수는 일정한데 여기에 진출하려는 지망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파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실세한 인사들이 나왔고 바로 이들에게서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출사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이들은 처음부터 과거진출을 단념하고 일생동안 학문에만 전념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입장도 근본적으로 보면 현실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 학문의 근본 목적이 현실 참여에 있으며 이들이 다음 세대인 제자들을 길러 대신 그들을 정치 현실에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정철의 경우는 물러나 인격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리거나 제자를 가르쳐 간접적으로 현실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현실 참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치현실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현실 참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철이 지녔던 이러한 지향적 성격이 시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현실 지향적 삶을 살았던 정철이 보여준 풍류의 세계가 시조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현실 지향과 풍류라는 두 가지 성격은 사대부 시조의 중요 과제이면서 특히 정철 시조의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정철 시조가 가진 또 다른 특성인 교시성, 정치현실에 대한 우환의식, 세상살이에 대한 경계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논의의 과정에 그의 가사 문학, 한시문, 전기에서도 필요에 따라 근거 자료를 원용하고자 한다. 『松江歌辭』 ‘星州本’, ‘關西本’, ‘李選本’과 『松江集』을 연구의 중심 자료로 사용하고 부차적으로 기타 관련된 인물들의 시조 작품과 문집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2. 현실 지향의 성격

유교의 학문 목적이 자기를 닦아 남을 다스리는 것³⁾,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연마하여 가정과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실천에 나아가는 것⁴⁾이기 때문에 유학을 전공한 유자들은 근본적으로 현실 지향적인 성향을 띤다.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는 제도가 보조적으로 있었지만, 현실 정치에의 참여와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는 대부분 유교적 교양을 쌓아 과거를 거쳐야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과거시험은 정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법이었다.

관직에 진출하는 초기에는 과거시험을 거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유교적 이상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보다는 수직적으로 상위에 있는 군주와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속된 당파의 운명 전체까지도 바로 군주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자들의 현실적 지향이라고 하면 바로 군주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 조직을 계층으로 보았을 때 유자들은 군주의 아래, 백성의 위에 놓인다. 위로는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유교적 이념에 따라 바르게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자가 이러한 조직에서 위로 군주를 섬기고 아래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과거라는 진출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고 군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군주와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관계와 장차 추구하는 미래의

3)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憲問『論語』卷之十四)

4) 格物而後知至 知至而後意誠 意誠而後心正 心正而後身修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天下平(經一章『大學』)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그 귀추가 어디에 귀착되는가에 따라 현실 지향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작자와 군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단절된 상황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스스로 군주에게 나아가기를 단념한 경우와 군주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나 실패한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이 양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남긴 문학 역시 달라진다. 다음은 군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상황을 들 수 있다. 군주의 총애를 얻어 중앙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군주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백성을 현장에 나가 다스리는 지방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철은 삶에서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의 시조 작품에서 이러한 정황을 읽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작품이 군왕과의 단절된 상황에서 군주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을 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단절의 상황을 수용하며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은거의 생활을 즐기는 내용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끊임없는 지향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의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출되는 깊은 정서는 많은 시조 작품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지속의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 군주의 측근에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지방관으로 백성을 직접 현장에서 다스리는 일이 모두 표현되었다.

1) 단절의 상황에서의 현실 지향

전체 80여 수의 송강 시조 가운데 20여 수가 군주(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군주에 대한 지향이 지향으로만 끝나서 단절의 상황을 보이는 작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기울계 대니거니썩나 쪽박귀 업거니썩나
 비록 이 세간 판탕홀만정
 고온남⁵⁾ 괴시웃괴면 그를 밋고 살리라⁶⁾

이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님에 대한 절대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 초장에서 님이 방탕하게 살아서 바가지조차 없거나, 더 심하게는 집안 살림을 완전히 탕진하여도 '고온 님'이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그를 믿고 살겠다고 했다. 이것은 조선 시대 여성들이 남편을 절대적으로 지향했던 경우와 외양이 닮았다. 그런데 신하가 군주를 향하는 것은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남편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위치에 처해 있었던 사실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군주가 살고 있는 조정을 떠나서도 신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간'은 단순히 개인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나라 살림이다. 나라 살림이 고갈되더라도 군주의 총애만 있으면 믿고 살 수 있다는 발언은 유자들에게 열려 있는 出處의 두 갈래 길 가운데서 나아감(出)만을 일삼으려는 정철의 현실 지향적 태도를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태도에는 정치적 현실에의 참여를 중시하는 기호사림의 주기적 세계관⁷⁾과 함께 정철이 속해 있던 서인의 정치적 집권을 위한 노력이 함께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이유만이라면 정철과 성향을 같이 하던 모든 인사들이 정철과 같은 현실적 지향을 보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⁸⁾는 점에서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이

-
- 5) 애정 시조에서의 '님'은 이성간의 상대를 일컫지만 정철의 시조에서의 '님'은 군주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6) 본고의 이하 모든 작품 자료는 『松江歌辭』 星州本, 關西本, 李選本에서 인용해 왔다.
 7) 영남 사림에 비하여 근기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던 기호 사림의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는 성향을 가졌고 세계관적으로도 현실을 중시하는 주기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8) 정철의 친한 친구였던 이이는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을 완상하며 심성을 길렀

것은 정철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궁중 생활의 개인적 체험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⁹⁾ 의식이 완전히 성장하기 이전에 체험했던 화려한 궁중에서의 무의식적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궁중 생활을 자기의 삶과 동일시하는 심리적 기제를 정철에게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화려하고 행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비극을 곧 이어 겪음으로써 뒷날 정철은 궁중에 들어와서 자기 중심으로 비극을 저지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과감한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자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궁중이고 여기서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년의 화려함에 비견되는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근원적 현실 지향성 때문에 정철이 생각하는 현실의식의 중심에는 군주가 항상 자리 잡았고 군주는 무조건적으로 지향하고 추종해야 할 존재로 표현되었다. 정철 자신의 이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떠나야 할 상황을 만나면 건디기 어려운 이별의 슬픔을 노

고 이를 시조로 남겼다.(줄고, “고산구곡가의 충담소산과 이기묘적·주성적 성격” 『안동어문학』 제6집 안동어문학회, 2001)

- 9) 정철은 어려서 그의 만누이가 仁宗의 淑儀가 되고, 막내 누이는 桂林君 璠에게 출가하여 무시로 궁중출입을 하면서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인종이 세자 시절 당시 대군이었던 明宗과 함께 놀며 情誼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정철이 10세 되던 인종 원년 을사사화가 일어나면서 송강의 매부 계림군이 역모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되고 처가인 송강의 집안도 곤경을 당했는데 이어진 사화로 곤경은 더욱 심화되었다. 정철 나이 16세에 부친이 유배에서 풀려나고 27세에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정철은 창평에 머물며 수학기를 보냈다. 이후 정철은 20대 중반에 벼슬에 올랐으나 선조가 등극하고서야 새로운 활로를 맞이한다. 동인과의 갈등 속에서 진출과 퇴치를 거듭하면서 서인의 영수로 자리 잡아간다. 특히 기축옥사와 임란을 계기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한다.('연보' 『송강집』, “송강문학의 전기적 배경 연구(이은봉, 『송강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3)”, 『송강문학논고』(최태호, 역락, 2000) 참조)

래하기도 하고 님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절실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조에 표현하기도 했다.

(2) 나을적 언제러니 秋飢風풍의 落낙葉엽는데
어름눈 다눙고 봄곳치 피도록에
남다히 기별을 모르니 그를설워 호노라

(3) 예서 놀애물 드러 두세번만 붓츠면은
봉니산 데일봉의 고은님 보련마는
흐다가 못흐는 일을 닐러 므슴흐리

(4) 내훈낫 산김적삼 썰고 다시 썰라
되나된 버티 몰되고 다료이다려
논논듯 놀란엇게에 거러두고 보쇼서

작품 (2)는 님을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추풍에 낙엽이 지는 가을에 이별을 하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돌아와도 님으로부터의 소식이 없어 이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花화灼작灼작 범나비 雙쌍雙쌍 柳뉴靑靑靑靑 괴소리 雙쌍雙쌍/ 놀즘승 곁즘승 다 雙쌍雙쌍흐다마는/엇디 이내몸은 혼자 雙쌍이 업는다'라고 하여 님을 떠나 홀로됨을 한탄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범나비, 괴소리, 놀즘승, 곁즘승'은 다 雙을 이루고 있는데 시적 자아만은 혼자임을 대비적으로 서러워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대상에게 님의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심정을 노래하게 된다. '楓葉 蘆花에 우러 네는 더 기력아/ㄴ올히 다디나가되 쇼식몰아 호노라'라고 하여 '기력'에게 님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는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머귀닙 디거야 알와다 ㄴ올힌줄을/細세雨우 淸청江강이 서느립다 밤괴운이야/千천里니의 님니별호고 줌뭇드러 호노라'라 하여 가을이 오고 청강에 비가 내려도 님과의 이별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1)번 작품에서 확인한 바 시적자아가 님에 대한

절대적 지향을 보였음에도 (2)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님부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적 자이는 이와 같은 단절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방법을 시적 표현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3)에서는 시적 자이가 가지지도 않은 날개를 부추겨서 님을 만나보겠다는 지향을 초장과 중장에서 보였다. 중장에서 불가능함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님을 향한 지향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시적 자이는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님에게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몸 허려내어 내물의 띄오고져/이물이 우리네여 한강여흘 되다흐면/그제야 님그린 내병이 혈혈법도 잇느니'라고 하여 몸을 혈어서 냇물을 만들고 이 냇물이 한강이 되어 님에게 이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으로까지 진행된 님 향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다. '내모음 버려내어 더들을 땡글고져/구만리 당턴의 번드시 걸려이셔/고은님 계신고더 가 비취어나 보리라'에서는 마음을 베어내어 달이 되고 그 달이 다시 님계신 곳을 비추겠다고 하였다. 자기를 새에 비유하거나 물과 달과 같은 대상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현실적으로 가로 놓인 님과의 단절된 공간 거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현실적 님 지향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님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작품 (4)에서 적삼을 빨고 거뭇 빨아 벌에 말리고 다려서 보내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입고 자기를 대하듯이 봐 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정성이 지나쳐서 선물이 될 수 없는 대상까지 선물로 등장한다. '松송林님의 눈이오니 가지마다 곳치로다/호가지 것거내여 님겨신더 보내고져/님이 보신 후제야 노가디다 엇더리'라고 하여 '눈꽃'을 선물하려고 하였다. '적삼'이 실용적 선물이고 영속성을 가진다면 '눈꽃'은 심미적이고 순간성에 그치는 선물이다. 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이 같은 선물을 통하여 시적 자이는 자기 자신이 님에게

실용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불가능한 방법으로 님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거나 효용성과 심미성을 가진 선물을 드림으로써 간접적 방법으로 님을 지향하려는 일들이 모두 난관에 직면할 때 시적 자아는 스스로에 대한 표면적 부정을 통하여 자아의 근본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 (5) 내양즈 늬몬 못흐줄 나도 잠간 알건마는
연지도 브려잇고 분써도 아니미니
이러코 괴실가 쫓은 전혀아니 먹노라

작품 (5)에서는 '내양즈'가 님을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남들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몸이 俊傑걸이런들 님이언제 브리시리/출하리 俗속士시라자 님을조차 노닐러니/俗속士시도 아니니 님못불가흐노라'라고 하는 작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신은 '俊傑'도 '俗士'도 아니라는 것이다. 작품의 문맥적 내용으로 보아서 '준걸'은 님이 버리지 않고 가까이 두게 되는 인물이라면 '속사'는 그 스스로가 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다. 두 인물은 님이 원해서건, 스스로가 추종해서이건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단어의 축자적 뜻만 따르다면 준걸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고 속사는 현실을 쫓기만 하는 비속한 선비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그와 달리 준걸이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님 향한 지극한 정성을 가졌으며, 속사에게 없는 충심을 가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번 작품을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적 자아가 왜 '내양즈 늬몬 못흐다'고 했으며 '연지와 분써'를 버려 두고 치장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시적 자아는 준걸이 반드시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지극한 정성을 가졌으며 더구나 속사가

가질 수 없는 충심을 가졌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5)번 작품 종장의 '이러코 괴실가 뜻은 전혀아니 먹노라'라는 발언은 님과의 단절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충심을 지닌 진정한 자아를 님에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역설이 된다.

시적 자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른 작품을 살펴도 이러한 역설은 더욱 분명해진다. '내시롭 어더두고 나막우음 불리잇가/내술잔 어더두고 느밋프레 들니잇가/옥ᄃᆞᆫ 처엄ᄃᆞᆫ이야 가실 주리 이시랴'에서 시적 자아는 님의 웃음을 부러워하거나 님의 술잔을 드려는 부정을 거부하고 '옥ᄃᆞᆫ'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불변의 마음을 가질 것을 님들에게 가르친 교시적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시적 자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특히 불변의 마음이 님을 향할 때 이것은 뛰어난 준절이나 현실만 추종하는 속사를 능가하는 충분한 소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옥같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屈굴삼삼閨녀의 冤원恨恨이 드러나니 魚어腹복중뎡의/삼귀는 살뜨려이와 忠충충혼조차 삼길쇼냐'¹⁰⁾라는 작품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기 배속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고기를 삶은 수는 있어도 굴원이 가졌던 충혼은 삶은 수 없다는 고사를 말하여 시적 자아의 변함없는 충혼이 바로 옥같은 마음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5)번 작품의 종장에서 님의 사랑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의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아첨과 능력을 과장한 자들과 같이 님과의 의례적 걸치레의 만남이 아닌 옥같은 마음과 충심을 가지고 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강렬한 현실적 지향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0) 초장이 탈락돼 있는 『송강집 별집』의 작품을 『文淸公遺詞』 수록본 작품으로 보완한 『송강시의 언어』(김홍규,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의 작품 표기를 따랐다.

2) 지속의 상황에서의 현실 지향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군왕과의 우호적 관계의 지속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베풀하던 내용을 담은 유형의 작품이다. 중앙 관직에 머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방관으로 나가야 했던 경우, 자청하여 지방관에 나아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철은 그 지향성으로 보아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작품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확인된다. 정철은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 백성들을 가르치는 훈민시조 16수를 창작하였는데 이 가운데도 군주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 한 수 들어 있다.

(6) 님금과 백성과 스이 하늘과 싸히로디
 내의 설운이롤 다아로려히시거든
 우린돌 슬진 미나리롤 혼자엿디머그리

(7) 眞진珠寶館 竹篤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느린물이
 太타白백山산 그림재롤 東동海해히로 다마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笕벽의 다히고져
 王왕程정이 有有限호하고 風풍景경이 못슬미니
 幽유懷회도 하도할샤 客기愁슈도 들디업다

(關東別曲)

작품 (6)에서 시적 자아는 초장과 중장에서 군주를 칭송하고 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백성(내)의 서러운 일을 두루 보살피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현장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진 생각이라기보다는 작자 정철이 시적 자아를 내세워 상층 지향적 사유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철이 볼 때 군주의 선의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우리)은 당연히 살진 미나리를 진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방관이 되어 백성을 교화하

는 위치에서도 군주를 지향하기 위하여 백성을 교시하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 훈민 시조 나머지 15수는 군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백성을 가르치는 정철 자신의 업적 보고서가 되는 셈이다.

지방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조정의 군주를 지향하는 시적자의 성향은 다른 시가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작품 (7)에서 강원도 관찰인 정철은 동해로 흐르는 물을 임금의 계시는 한강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지방관으로서 일정이 유한하여 싫어 할 수 없는 자연을 오래 즐길 수도 없다. 군주에게 이를 수도 없고 자연을 즐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깊은 회포와 나그네의 근심만이 깊어간다고 하였다. 정철은 비록 현직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조정의 군주를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이 같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것은 조정에 나아가서는 백성을 걱정하고 초야에 물러나서는 군주를 우려하는 유자의 일반적 관행만으로는 온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벼슬을 떠난 상태가 아닌 지방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군주를 대신하여 백성을 위무하고 다스리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정철은 군주가 있는 중앙 조정을 언제나 매우 간절하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군주와 함께 했던 조정에서의 생활을 중시하거나 회상하는 다른 작품에서 거듭 확인된다.

- (8) 신군망 교리적의 내마춤 슈찬으로
상하번 7초와 근정문 밧기러니
고은님 옥갓툰 양지 눈의암암 흑여라
- (9) 봉너산 님계신더 오경틴 남은소리
성넘어 구름디나 깃창의 들리느다
강남의 느려웃가면 그림거든 엇디리

작품 (8)에서는 修撰 벼슬을 하던 시적 자아가 校理 벼슬을 하던 辛應時와 勤政門 밖에서 번갈아 숙직을 썼었는데 그때 뵈던 군주의 옥 같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였다. 그 시절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시적 자아가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항상 함께하기를 추구하던 군주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궁중이고 따라서 궁중에서의 생활이 가장 소망스럽고 행복했다는 말이다. 호의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하고 소망스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군주의 모습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군주가 거처하는 궁중이면 언제나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광화문 드리드라 니병조 상디방의/흐르밤 다솜경의 스물석덩 티는소리/그 더더 딴적이 되도다 꿈이론 듯 흐여라'라고 하여 군주가 계시는 궁성의 南門인 光化門 안에서 숙직을 하던 시절을 그리운 옛날 이야기나 아름다운 꿈으로 기억하고 있다. 궁중에서 숙직을 하며 시각 알리는 소리를 듣던 일을 두고 '그 사이에' 지나간 옛일이 되었으며 꿈결과 같다고 한 것은 시적 자아에게 궁성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망스런 순간이었던지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9)와 같은 작품에서는 공간적으로 군주가 거처하는 궁성이 곧 시적 자아의 심리적 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궁성을 조금 벗어난 어느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거기서는 궁성에서 울리는 시각을 알리는 소리가 아직은 들리는 곳이다. 궁중에서 군주를 가까이 모시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궁성에서 행복하게 듣던 오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종장에서 江南¹¹⁾에 내려갈 경우 궁성안의 군주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오경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워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향은 돌아가

11) 여기서는 작자의 고향인 전남 昌平을 뜻한다.

고 싶고 그리운 곳이지만 시적 자아에게는 궁성이 더 그리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적 자아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근거지는 언제나 군주와 함께 하는 궁성으로 나타남은 '江江湖호의 期期約약 두고 十十年년을 奔分走뉘하니/그모라는 白鷺구더론 더딤온다 ㅎ것마는/聖성恩은이 至지重중ㅎ기로 값고가려 ㅎ노라'라는 작품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시적 자아가 강호에 돌아갈 것을 이미 기약했고 白鷺는 늦게 돌아온다고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궁중에서 聖恩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은은 사실 강호에서도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시적 자아는 군주 가까이에서만 보은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군주 측근에서 성은을 갚아야 함을 주장하여 궁성이 시적 자아의 행복하고 이상적 공간이며 추구해야 할 현실임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3. 風流의 성격

風流의 사전적 의미는 속된 일을 벗어나 풍치가 있고 멋스러운 일, 운치스러운 일, 혹은 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등으로 되어 있다. 사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속된 일을 벗어났다는 점, 멋이나 운치가 있다는 내용은 풍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自然, 醉興, 彈絃 등을 풍류의 핵심 요소로 보고 가사문학을 논의한 예도 있다.¹²⁾

정철의 시조에서 풍류적인 면모는 음주 취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자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성이나 분량을 기준으로 그의

12) 정익섭, “歌辭와 風流(멋) 攷”, 『가사연구』, 국문학연구총서 4,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8, 83-112쪽.

시조에 나타난 풍류의 성격을 논의하자면 음주 취락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풍류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연 풍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1) 자연 풍류의 성격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자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상이었다. 자연은 번잡한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심신을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심성을 연마하며 성리학적 진리를 탐구하기도 하며 유교 공동체로서의 가족과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도 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에게 부여된 자연이라는 공간 혹은 대상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그들의 문학적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일은 그들의 문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관건으로 여겨져 왔다.

선비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현실적 정치 행위와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위 나아가면 출사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물러나면 자연에 돌아와 머물게 되어 정치 현실과는 대칭적 공간으로 자연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철의 시조에서도 자연을 그가 보여준 정치 현실적 지향성과 연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 현실의 중심에 위치한 군주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지향했던 그가 자연에 돌아왔을 때 자연 속에서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는지가 매우 흥미 있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가 남긴 80여 수의 많은 시조 작품 가운데 자연을 노래한 작품은 몇 수에 그치고 있어서 당대 다른 시조 작가에 견주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 이황이 陶山十二曲 열두 수에서 대다수 자연을 노래했다거나¹³⁾ 정철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이가 高山九曲歌에서 역시 대부분 자연을 주된 내용으로 노래

했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¹⁴⁾

- (10) 새원 원췌되여 되롱삿갓 메오이고
세우샤풍의 일간독 빗기드러
홍노화 빅빈췌제 오명가명 흐노라

새원은 지금의 고양군 신원이다. 시적 자아는 院主라는 官職에 재임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쉬고 자연을 찾아 나서고 있다. 細風斜雨와 紅蓼花, 白蘋洲渚라는 자연 속에 도롱이와 삿갓을 쓰고 한 줄기의 장대를 들고 '오명가명'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낮은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현직을 담당해서인지 시적 자아는 매우 호방하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는 '새원 원췌되여 식비를 고터닷고/뉴슈 청산을 벗사마 더뎛노라/아히야 벽테예손이라커든 날나가다 흐고려'라는 작품에는 이러한 여유가 더욱 두드러진다. '뉴슈와 청산'을 벗삼고, 어울려 놀기 위하여 유흥을 찾아 나서는 종장의 행위에서 시적 자아의 여유 있는 태도가 확인된다.

'明明珠珠 四스萬만斛곡을 년넝피 다바다셔/담논듯 되논듯 어드러 보내는다/헌스훈 방울룬 어위계워 흐는다'라는 작품에서는 비를 맞는 연잎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초·중장에서는 빗방울이 연잎에 떨어지는 모습을 두고 연잎이 明珠를 담고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중장에서는 물방울이 흥겨워 한다고 하여 시적 자아의 흥겨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들 작품을 통하여 정철이 보여준 자연 친화적인 삶은

13) 줄고, "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질서 연구", 『어문학』 제70집, 한국어문학회, 2000.6 참조.

14) 줄고, "고산구곡가의 충담소산과 이기묘적·주성적 성격", 『안동어문학』 제6집, 안동어문학회, 2001.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제20집, 한국시조학회, 2004.1 참조.

심성 수양을 추구하던 도학적 성향과는 거리를 가지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여가에 번거로움이나 자연 속을 배경으로 쉬고 즐기며 휴식하려는 의도가 작품에 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유를 가졌을 때 보인 이와 같은 유희적 자연 풍류는 그가 처한 입장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11) 쇠나기 한줄기미 년넉페 솟드로개
 물무든 흔적은 전혀몰라 보리로다
 내마음 더그턱야 덜물줄을 모르고져

(11)은 비를 맞는 연잎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보이는 작품이다. 소나기가 내리도 물들지 않는 연잎을 말하면서 이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기의 마음에 견주었다. 이런 면모를 두고 자연을 관조하며 심성을 연마하는 것으로 보려는 논의가 있기도 하나 이것은 도학적이기보다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물에 젖지 않는 연잎을 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기마음을 견준 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시적 자아의 의지표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가 정철이 현실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물아래 그림자 디니 드리우히 둠이 간다/더중아 게 잇거라 너가논디 우러보자/막대로 희구름ㄹ러치고 도라아니보고 가노매라’라는 작품에서는 수도를 일삼는 중이 거침없이 자연을 따르는 것과는 다른 세계에서 서 있는 시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말없이 흰 구름만 가르치고 떠나가는 중처럼 자연을 수용하고 친화할 수 없는 시적 자아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자연적 삶의 기회를 맞이하고서도 현실적 지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작가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쓴늑물 테온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초옥조분 줄이 괴더옥 내분이라/다만당 님그린타사로 시름겨워 호노라’라는 작품 초·중장에서 시적 자아는 자연의 ‘쓴늑물, 테온물’이 인위적 고기보다 맛이

더 있고 자연적 '초옥'이 자기 분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장에 와서는 '님(군주)'를 그리워하여 시름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열악하지만 자연 환경이 정철에게도 安貧樂道의 교과서가 되었다면 시름에 못 견디하기보다는 초야에 돌아온 다른 선비들과 같이 이런 환경을 내려준 군주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작품을 종결했을 것이다.¹⁵⁾ 그러나 자연 속에서도 군주를 그리워하며 시름했다는 것은 정철이 자연과 친화하지 못하고 단절된 면을 보인 것이다. '靑靑山산의 부흰빗발 괴엿디 날소기논/되롱갓 망누역아 너논엇지 날소기논/엇그제 비단옷버스 니 덜물거시 업서라'라는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청산이나 빗발과 같은 자연을 완상이나 친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유는 종장에서 표현한 대로 벼슬을 떠나 비단 옷을 벗은 상황에서 닦을 것이 달리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현실에서는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펴고 자연에 돌아와서는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 길인데 정철의 경우는 달랐다. 오랫동안 자연 속에 머물며 이와 친화하기보다는 현실적 참여를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현직의 벼슬에 있으면서 자연을 만났을 때에는 여유와 유희를 그 속에서 찾았으나 불우한 상황에서 자연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의 단절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더욱 절실히 지향해야 할 배경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했다. 정철의 시조 작품에 자연과 친화하면 유교적 심성 수련을 일상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15) '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퍼 조히남다/삿갓비고 쓰고 누역으로 옷슬삼아/이몸이 칩지아니히움도 亦君恩이샷다'라는 작품에서 맹사성은 도롱이(누역)이로 겨울 옷을 할 정도이면 가난이 심하고 추위를 이길 수 없었겠지만 이것을 군주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비록 못일워두 林泉이 도흐니라/無心魚鳥는 自閒閑 ㅎ앗느니/早晚에 世事닛고 너를 조츰려 ㅎ노라'에서 권호문은 뜻을 이루지 못하여도 임천이라는 자연 속에서 좋게 지내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의 강렬한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2) 음주 풍류의 성격

음주 풍류는 자연의 그것에 비하여 유희를 더욱 수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유교의 근본적 입장에서는 음주 역시 유교적 예교를 시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 백성을 상대로 교화를 펼치는 정철의 훈민 시조에서는 음주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자적 입장이 견지된다.¹⁶⁾ 그러나 음주가 정철 자신의 일로 돌아왔을 때는 그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12) 재너며 성권릉집의 술니닷 말 어지 듯고
 누은쇼 발로박차 언치노하 지줄테고
 아히야 내권릉 거시나 덩좌수왓다 ㅎ여라

이 작품에서는 鄭座首가 시적 자아로 등장했다. 그 상대 인물은 成勸農이다. 좌수직에 있는 鄭澈이 권농직에 있는 成渾을 찾아 가는 내용이다. 초장에는 친구 집에 술이 익었다는 내용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중장에서 친구 집에 가기 위하여 ‘누은 쇼’를 발로 찬다거나 ‘언치’를 놓아 놀러 탄다는 등의 표현은 시적 자아의 행동이 흥겨움에 들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중장과 종장 사이의 시간 거리는 먼 공간 거리에 비하여 매우 짧다. 소를 타고 가야 할 거리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소를 타자 바로 성권농의 집에 도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즐기기를 위

16) ‘풀목 쥐시거든 두손으로 바티리라/나갈더 계시거든 막대들고 조촐리라/향음 주 다 포후후에 뵈셔가려 ㅎ노라’에서 ‘향음주’는 향촌 생활에서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하여 한 달음에 달려 왔음을 시간 거리의 단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80여 수의 전체 정철 시조 가운데 음주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은 총 14수가 나타나는데 몇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작품과 같은 호방함과 유흥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술을 너무 가까이하여 정철은 스스로 술을 금하려는 결의를 하기도 하고¹⁷⁾ 술과 대화하는 시조 작품을 지어 술과 절교하려는 생각을 나타냈다.¹⁸⁾ ‘므스일 일우리라 십년지이 너를 조차/ 내훈일 업시서 외다마다 흐느니/이제야 절교편 지어 전송호디 엇더리’라고 하여 술과 絶交를 선언했으나 떠나려는 술의 화답을 듣고는 절교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다시 가까이 지내겠다고 술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선술 걸러내어 밍드록 먹어보새’라고 청하기도 하고 ‘궂선이 저물가마는 간디마다 술을보고/넋집 드러내어 웃는 줄 므스일고’라고 하여 술을 보고 반가워서 잇몸을 드러내고 웃음 짓기도 한다. 시적 자아는 흥망이 수 없이 일어나지만 자신이 사는 시대를 태평성대로 보고 ‘이도흔 태평연화의 훈잔호디 엇더리’라고 하여 호방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스로 취선이 되어 취흥을 ‘아히도 採치薇미가고 竹죽林님이 뷔여세라/헤친 碁기局국을 뉘라서 주어주리/ 취하여 松송根근을 지혀시니 날새는 줄몰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음주를 통한 유흥과 호방함은 작가의 현실적 성취와 상관을 가진다. 군주와 호의적 관계를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 있을 때 정철은 음주를 통한 여유와 흥취를 마음껏 노래했다.

17) 정철은 그의 「戒酒文」에서 ‘동정이 뗏뗏함이 없으며 말이 마땅함을 잃어서 천만 가지의 잘못된 일들이 다 술을 따라 나오는데 술이 취한 때에는 이런 행동을 달게 여겨 행한다(動靜無常 言語失宜 千邪萬妄 皆從酒出 方其醉時 甘心行之)’라고 반성도 했으며 「新年祝」이라는 시에서는 ‘신년에 빌고 신년에 비니 신년에 비는 바는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라네(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少酒杯)’라고 하여 술을 절제하려고 다짐하기도 했다.

18) 酒問答三首

그러나 그가 어찌할 수 없이 현직을 물러나거나 귀양을 가는 등 현실 정치로부터 소외되었을 때에는 음주가 현실적 고뇌를 달래는 역할을 했다. 시조에서 차지하는 작품의 수는 적지만 작가가 음주를 통하여 현실적 고뇌와 근심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 (13) 내말 곳터드러 너업스면 못살려니
 머흔일 구준 일 널노하야 다 닛거든
 이제야 늬괴려 하여 넷벗말고 엇디리
- (14) 돌아가는 마음은 넓은 나루의 물결과 같은데
 서쪽 終南으로 내려가니 목메이는 일이 다시 많네
 北山을 대하여 흰머리를 돌리니
 술 한잔에 근심이 끊어지고 석양이 저무네¹⁹⁾
- (15) 혼 薰잔 먹세그려 또 혼薰잔 먹세그려
 筭산노교 無무盡진無무盡진 먹세그려 이몸주근 後후면 지게우히 거적더
 퍼주리혀미여가나 流뉴蘇소寶비帳당의 萬만人인이 우러네나 어욱새속새
 덩가나무/ 白帛楊양 수폐가기곳 가면 누른히 흰돌 7는비 굴근눈 쇼소리
 빈람 불제
 뉘 혼薰잔 먹자홀고
 호믈며 무덤우히 진나비 꼭람불제 뉘우춘돌 엇디리

작품 (13)에서 시적 자아는 술과 절교를 선언함에 술이 이를 수용한다는 말을 듣고 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내용의 작품이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힘하고 곱은 일'을 술을 통하여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술을 권한다. '초초 혼 부싱이 무스일을 하라하야/내잡아 권 혼는 잔을 덜먹으려 혼는다'라고 하여 고되고 수고로운 인생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19) 歸心恰似廣津派 西下終南咽更多 直北山前回白首 一杯愁絕夕陽斜(鄭徹 '江樹遺閑' 『松江集 續集』卷之一)

술을 권하고 있다. '鶴학은 어디가고 亭淸子즈는 비엿느니/나는 이리가 먼 언제만 도라올고/오거나 가거나 등의 혼잔 자바흐자'라는 작품은 학이 정자를 떠나듯이 남아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야 하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술을 마시고자 했다.

그런데 같은 이유에서의 음주는 작가의 한시 작품에 더 많이 표현되었다. 근심을 떨쳐 보낸다는 '遺悶'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작품 (14)는 술로 근심을 극복하고 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잔의 술로 근심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이것은 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백잔의 술도 오히려 근심을 깨뜨리지 못하여 마시고 마시기를 參屋이 뜨는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 하네'²⁰⁾라는 작품에서는 근심을 떨치기 위하여 무한정으로 술을 마셔야 했던 시적 자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작품 (15)는 세속의 출세 여부에 관계없이 술 자체가 좋아 무한정으로 마시자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예로 든 한시의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면 음주의 이유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깊은 근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철에게 있어 근심이 음주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한시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마름노래 사이사이에 뱃노래 들리/배 돛대 그림자 아득한데 산 그림자가 기울었네/마흔 두 해의 세월이 날아가는 새와 같으니/뜬 인생에 마시지 않고 이 근심을 어찌 할까?'²¹⁾라는 작품에서는 근심으로 인하여 음주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읊고 있다.

음주를 하는 이와 같은 사정을 그는 '戒酒文'이라는 글에서 매우 체

20) 百觴猶未破愁城 飲到參橫又日橫 浮世離別非怪事 暮年歧路重含情 (鄭徹 '高陽山齋有吟' 『松江集 續集』卷之一)

21) 菱歌相間棹歌發 帆影遠隔山影斜 四十二年如去鳥 浮生不飲奈愁何 (鄭徹 '宿桂林兄江亭' 『松江集 續集』卷之一)

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술을 즐기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不平 때문에고 둘째는 흥겨움 때문이며, 셋째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이고 넷째는 남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은 다스려 보내는 것이 옳고 흥겨움은 읊조림으로 얻는 것이 옳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정성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옳으며 남이 권하는 것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나의 의지가 이미 수립되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옳다.²²⁾

정철이 술을 즐기게 된 데에는 不平, 遇興, 待客, 人勸의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상의 네 가지 일은 각기 이치로 다스려 보내고[理遣], 읊조리고[嘯詠], 정성스럽고 미덥게 하며[誠信], 뜻을 수립하는 것[志樹]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식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철은 일생동안 스스로 제시한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음주를 중단할 수 없었다.

그의 시조에 나타난 음주 풍류의 구체적 내용이 '戒酒文'에서 그가 제시한 음주의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주로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불평과 우흥이 그것이다. 실제 시조 작품에서의 음주 풍류는 호방함과 흥겨움을 내용으로 하여 주로 우흥과 관련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고뇌와 번뇌를 내용으로 하여 불평도 그의 음주 풍류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결국 이것은 그가 지향한 현실에 성공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음주를 통하여 유희를 즐기고 정치 현실에서 난항을 겪거나 소외되었을 때에는 고뇌와 근심을 음주로 풀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²³⁾ 이것은 '향음주 파한 후에 되셔가려 흐노라'고 한 훈민시조의

22) 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 待客三也 難拒人勸四也 不平則理遣可也 遇興則嘯詠可也 待客則誠信可也 人勸雖苛 吾志既樹則不以人言撓奪可也(鄭澈, '戒酒文' 『松江集 原集』卷二)

23) 정철의 스승 김인후도 일생 동안 고뇌로 인하여 술을 마셨고 많은 한시 작품에

예에서와 같이 유교적 예의 실천 과정으로서 음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다. 현대인들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 가지게 되는 기쁨과 괴로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와 같은 맥락의 음주풍류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을 주로 시조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논의의 필요에 따라 부차적으로 그의 한시나 전기 등에서 관련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고 정철의 주변에 대비되는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정철의 시조가 가진 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정철이 시조에서 보여준 현실 지향의 성격이 어떠한 지를 살폈다. 모든 유자들이 가졌던 유교라는 학문 성격상 기본적으로 현실 지향적이었던 것처럼 정철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정철의 현실 지향은 궁중의 군주를 절대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 지향의 그 구체적인 성격이 일반적 유자의 경우와는 변별성을 가진다. 정철이 가진 특징적 지향성은 그가 현실을 중시하는 주기적 세계관을 가진 점, 근기지역 기호 사림의 인물이었다는 점 등과 함께 그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유년

서 이런 음주를 내용에 담아 표현했다. 그리고 정철과 가까이 지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신희 역시 술과 노래를 통하여 자기의 깊은 시름을 풀다고 하면서 이를 시조에 표현했다. 음주를 통하여 시름을 풀고 이를 한시나 시조에 표현하는 전통이 시조를 남긴 세 사람의 기호 사림의 인물들 사이에 발견된다.(줄고, "신희시조의 대립성과 현실 대응 방식 연구", 『문학과 언어』 제15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4. 줄고, "김인후의 문예의식과 그 시조문학의 성격", 『어문학』 제83집, 한국어문학회, 2004, 참고)

기의 궁중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유년기에 궁중에서 화려하고 행복한 생활을 경험하고 연이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궁중이 정철에게는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나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궁중의 군주를 향한 그 나름의 특징적 지향을 일관 되게 보여 주게 되었다.

우선 군주와의 단절된 상황에서 보인 현실 지향성을 살폈다. 정철은 방탕한 가장이 집안을 돌보지 않아서 망하는 일이 있어도 '고온남'이 사랑해 주기만 하면 믿고 살겠다는 비유를 통하여 군주에 대한 절대적 지향을 시조에서 표현했다. 그 때문에 군주와의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철은 이별을 슬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기러기에게 님 소식을 부탁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적 자아는 '날개를 부추긴다'거나, 몸을 헐어 내어 물이 되어 님에게 흘러간다거나, 마음을 베어 내어 달이 되어 님을 비추겠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작품에 담아서 강렬한 현실 지향의식을 작품에 형상화하기도 했다. 또한 적삼을 만들어 보내거나 눈꽃을 선물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지향이 불가능함을 자각하면서 마침내 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매우 극단적 표현을 하는 데까지 나간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시적 자아는 俊傑이나 俗士가 가지지 못한 옥 같은 마음과 충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자아의 님 지향이 정당하며 님은 자아의 존재를 거부 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현실적 지향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정철은 군주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매우 이상적인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속의 상황도 군주의 측근에서 벼슬을 하는 경우와 군주를 떠나 지방관으로 나가 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적 자아는 전자의 상황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후자의 상황에서는 비록 군주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주를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하여 궁중을 지향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궁중에서 군주를 대하던 시절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회상하거나 조금이라도 궁성이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자 하여 작가의 궁중 지향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시조에 나타난 그의 현실 지향성은 출처에 관계없이 유교적 학문을 실천하거나 관직을 얻어 지방에 나아가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여 군주를 측근에서 보좌하며 정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군주에 대한 절대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풍류를 자연과 음주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살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발견된다. 군주와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유흥과 호방함이라는 모습으로 풍류가 나타나고 현실과 단절된 상황일 때에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단절의 정서를 보이기도 하고 군주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풍류가 나타났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인 이와 같은 특성은 정철이 정치 무대에 나아가서는 정사를 살피고 물러나서는 자연 속에서 심성을 연마하며 제자를 기르는 유자 일반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음주 풍류의 경우에도 단절과 지속이라는 현실 지향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작품의 분량 면에서 보면 지속의 상황에서 가지는 여유와 유흥이 음주 풍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구와의 흥겨운 만남이나 술을 보고 반가워서 자기도 웃음을 짓게 되거나 취선의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단절의 상황 속에서 술은 고뇌와 근심을 잊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시조 작품의 수는 다소 적으나 이런 내용의 한시 작품이 특히 많이 나타났다. 그의 '장진주사'에 보이는 무한정의 음주가 유흥적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번뇌를 망각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작자의 행위임을 확인했다. 음주와 관련한 이러한 풍

류는 정철이 戒酒文이라는 산문에서 말한 네 가지의 음주 이유 가운데 不平과 遇興이 그의 시조 작품에 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철의 문학 전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그의 문학 작품에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가 왜 그의 문학 작품에 담기게 되었으며 이들 다양한 주제는 상호 어떤 질서를 가지고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 살핀 현실 지향이나 풍류의 성격 역시 여기서 다루지 않은 훈민 시조의 교시성이나 시대 문제에 대한 걱정, 세상살이를 경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의 시조 작품과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논의할 때 적어도 시조 안에서나마 정철 문학의 성격을 좀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고로 미룬다.

〈참고문헌〉

- 정 철, 『송강집』, 『송松 강江 가歌 스辭』
 정철 원저, 박성의 주해, 『松江歌辭』, 정음사, 1961.
 정익섭, “歌辭와 風流(멋) 攷”, 『가사연구』 국문학연구총서 4,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강혜경, “송강 한시의 주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권두환, “송강문학의 특질”, 『인문학지』 제9집 제1호,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권두환, “송강정철문학의 특질”, 『인문학논총』 제30집, 서울대학교, 1993.
 권용주,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4.
 권정희, “송강정철의 시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논문, 1995.
 김규성, “정송강과 윤선도의 단가에 대하여”, 『상산이재수박사 환력기념논문집』.
 김문기, “송강·노계·고산의 가집 판본 및 책판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1집 제1호, 1989.
 김상진, “송강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과 차별 양상”, 『은지논총』 제8집, 2002.

-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제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김석희, “정철문학연구-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81.
- 김선자, “송강 정철의 시가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3.
- 김열규, “송강의 역사성과 텍스트”, 『고시가연구』 제2집 제1호, 1995.
- 김윤식, “송강문학의 양면성-언어와 현실에 대한 노트②-”, 『현대문학』 1970년 6월호 제16권 제6호, 통권186호.
- 김중석, “송강문학 형성의 배경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논문, 1994.
- 김진옥, “송강 정철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논문, 2002.
- 김홍규, 『송가시의 언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 박영주, “송강문학에 나타난 출처관”, 『반교어문연구』 제11집, 2000.
- 박영주, “송강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5집 제1호, 1999.
- 박영희, “송강의 연구시가 연구-시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2.
- 박정애, “정철의 훈민가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2.
- 서수생, “송강문학연구-특히 그의 한시부에 대하여-”, 『논문집』 제7집, 경북대학교, 1963.
- 서정국, “송강 가사 어휘의 의미 내용 고찰”, 『새국어교육』 제25집 제1호, 1977.
- 손찬식, “송강 정철 시세계”, 『어문논집』 제34집 제1호, 1995.
- 신경림 외 편저,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 신연우, “주세붕에서 정철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운지논총』 제4집 제1호, 1998.
- 신용대, “송강정철 시조의 연구”, 『인문학지』 제4집 제1호, 충북대학 인문 과학 연구소, 1989.
- 신용대, “정철시조의 비판적 현실 인식”, 『인문학지』 제5집 제1호, 충북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1990.
- 신용대, “정철시조의 성격 연구-이기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7.
- 원용문, “송강 시조에 대한 논의”, 『한국어문교육』 제7집 제1호, 1998.
- 원용문, “송강 정철론”, 『청람어문학』 제20집 제1집, 1998.
- 윤성근, “훈민시조연구”, 『한메 김영기선생 고회기념 논문집』, 동간행위원회, 1971.4.
- 윤인현, “송강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에 나타난 환골탈태”, 『어문연구』 제30집 제1호, 2002.

- 이동철, “정송가 시가의 주제에 관한 연구-그의 가사·시조와 한시와의 통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0.11.
- 이병기,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 이용숙, “송강시조의 의식세계와 내적 상관성”, 『논문집』 제33집 제1호, 1996.
- 이재원, “송강 정철의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15집 제1호, 1997.
- 임주탁, “송강시조의 우의적 관습”, 『인문학지』 제9집 제1호,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전일환, “송강정철 국문시가의 수사기교”, 『한국언어문학』 제45집, 2000.
- 전재강, “신흙 시조의 대립성과 현실 대응 방식 연구”, 『문학과 언어』 제15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4.
- 전재강, “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질서 연구”, 『어문학』 제70집, 한국어문학회, 2000.6.
- 전재강, “고산구곡가의 충담소산과 이기묘적·주성적 성격”, 『안동어문학』 제6집 안동어문학회, 2001.
- 전재강, “김인후의 문예의식과 그 시조문학의 성격”, 『어문학』 제83집, 한국어문학회, 2004.
- 정재훈,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시조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정형기, “시조시가론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3.
- 조규익, “송강 정철의 단가”, 『고시가연구』 제2집 제1집, 1995.
- 조규익, “송강 정철의 장르 의식”, 『새국어교육』 제50집 제1호, 1993.
- 조태흠, “18·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15집, 한국문학회, 1994.12.
- 최규수, 『송강정철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 최태호, “정송강 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2.
- 최태호, 『송강문학논고』, 역락, 2000.
- 허남춘, “송강 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10집, 1999.
- 홍정자, “『장진주사』장르론”, 『태능어문』 제3집, 서울여자대학 국어국문학회,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pursuit of reality and elegance expressed in
Jungchull's Sijo

Jeon Jae-Gang

Jungchull(鄭澈) was a very famous poet of Kasa(歌辭), Sijo(時調) and Hansi(漢詩) during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kingdom. He has been studied by modern scholars mainly as a poet of Kasa(歌辭). These days, however, his Sijos are being studied as an important literary achie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rsuit of reality and elegance expressed in Jungchull's Sijo in order to understand his Sijos more deeply. In the process of this discussion, I will take a look at some of his Kasa(歌辭), Hansi(漢詩) and biography also, and I will compare his Sijo(時調) with that of his teacher's, friend's and senior's.

Jungchull considered it important to become an official in the royal court because he was a Confucian scholar who believed in jugi-theory(主氣論), in which all realistic phenomena is evaluated(Confucianism is very realistic in essence), and he had a happy life in the royal household until he was ten years old. I found that characteristics of his "realistic pursuit" are represented in his Sijo by two situations: the one is when he is apart from the King, and the other when he is together with the King. In all situations, though, he pursued an official position in the royal court.

When he was apart from the king, his absolute resolution to follow the King was expressed in his not being able to sleep. In his *sijo*, he asks the wild duck to inform him of the King's welfare. He tries to flap his wings, to be the water or the moon in order to reach the royal household where the King was living. When he recognizes it's impossible, he expresses his perfect loyalty to the King in his *Sijo* by using literary paradox. According to this, he describes himself as not an able scholar, but also not a flattering scholar.

In his *sijo*, he reminisces about working for the King in the royal household, when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King. But when he was an official in the province 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King, he expressed his intention of coming back to the royal household in order to be with the King again. From this we can ascertain that his pursuit of reality means to occupy an official position in the royal household, to serve the King and to have political power among of the officials.

His elegance, expressed in his *sijo*, is deeply related to his absolute political pursuit of the King. He describes two kinds of elegance: nature related elegance and drinking alcohol related elegance. Two kinds of nature related elegance were delineated in his *sijo*, depending upon his political situation. When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King, occupying an official position, he delineated his gladness and free-heart in harmonizing with nature. But when he lost his official position, he expressed his purity using nature, and exclusion from nature. These kinds of nature related elegance we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ual Confucian scholar, for example, contemporaries Lee Hwang

(李滉) or Lee Ih(李珣).

Next, two kinds of drinking alcohol related elegance were delineated in his sijo depending upon his political situation. More often he depicted excitement and composure of mind in his sijo by drinking alcohol in good situations than in efforts to overcome his agony in bad situations. The tradition of overcoming one's agony by drinking alcohol in bad situation was discovered by this writer in Jungchull's teacher's, and also his junior's sijo. Lastly in my next research paper future, I will look at the reason why certain various themes are represented in Jungchull's sijo, and what their the relationships are, to understand his literary works as a whole.

Keywords : Confucian scholars of Giho region, The pursuit of reality, The pursuit of royal household, The nature related elegance, The drinking alcohol related elegance.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